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2년 11월 13일 (둘째 주일)

성경본문 : 로마서 15장 22-33절

설교제목 : “너희 기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주간 특별한 기도의 시간에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를 향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로마교회를 향하여 함께 힘을 합쳐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30절) 이러한 요구를 하는 이유는 바울이 감당해야 할 사명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모금한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25-26절) 그런데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 결코 순탄치 않은 것임을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도내용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31절)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유대교를 배신한 자라고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화를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바울은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자신의 사역이 잘 수행되어지길 원했습니다.(31절) 바울은 혹시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이방인들이 보낸 구제헌금이라 하여 그 구제헌금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속에는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강권적으로 자신과 함께 힘을 합쳐서 분투하여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교회공동체가 가진 의무 중에 하나는 힘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함께 부르짖는 기도로 표현합니다. “부르짖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큰 소리로 말하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도의 유형이 있다면 단연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교회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권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왔습니다. 헤롯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격인 베드로마저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디로 지도자를 잃을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 간절히 베드로 사도를 위해 부르짖었습니다.(행12:5)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옥문을 열어 베드로를 살려주셨습니다.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위기가 극복된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현장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와 사명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교회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기도는 묶인 것을 풀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가 잡혔을 때도 합심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잡혔을 때에만 기도했겠습니까? 분명 동일하게 합심하여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왜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합심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순교도, 베드로의 구원도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야 야고보의 순교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구원은 우리의 기도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야고보의 믿음이 베드로보다 덜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고보보다 베드로를 더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야고보의 죽음 역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야고보의 죽음을 실패로, 베드로의 구원을 승리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여

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로마를 기쁘게 방문하고 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싶어 했습니다.(32절)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 이후에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수차례 로마를 방문할 계획이 있었습니다.(22-23절) 바울은 오래 전부터 서바나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바나’는 오늘날 ‘스페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를 방문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기 전 로마를 방문하고자 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바울이 로마교회의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24절) 두 번째는 로마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서바나로 보냄받는 것이었습니다.(24절) 한마디로 로마교회의 선교후원 때문이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여 그곳의 성도들과 교제하여 기쁨을 얻고, 그들로부터 재정 및 기도의 후원을 입어 서바나로 갈 계획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바울은 자신의 바램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기다렸습니다.(32절) 바울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 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길 간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진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좋은 질문인데, 그러나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핵심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대로 기도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드러난 결과로 판단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때론 육신의 질병이, 삶의 실패가 심지어 삶의 죽음이 더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야고보에게 더욱 유익한 것이었고, 베드로는 아직 사명이 남아 있는 것이 유익하기에 구원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의 죽음도 베드로 구원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한 것입니다. 한 주간 함께 힘을 다하여 기도하길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묵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바울이 로마교회에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주기를 요구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25-26절/31절)
- 2) 바울은 로마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32절)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기도의 자리에 은혜가 고입니다. 더불어 부르짖는 자리에 묶여진 모든 것들이 풀리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구역원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함께 서로 격려하여 새벽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나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함께 부르짖길 바랍니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